

# TINAL MMAA



Memories in Myanmar

김치훈, 이한희 명화진, 심하진, 이현아



01 호스트 기관·팀 소개

02 보육

03 하우스 케핑



01

# <u>"호스트 기관·팀 소개"</u>

# 5개월간 얌마의 생활 장소

### YANGON YMCA

# 양곤 YMCA에 대해 아시나요?



#### 미얀마의 경제수도라고 불리는 '양곤'에 위치한 YMCA

적십자사, 미얀마 종교협회, 기독교협회를 아우르는 양곤YMCA는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거의 유일한 기독교 단체, 정치적인 위치도 매우 높다.



5-7 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함 YMCA 소속 3개의 사이트와 쉐삐따 초등학교에서 활동

> 많은 미얀마 청년들의 자취방, 미얀마 여행객들의 게스트하우스 YMCA직원 대부분이 게스트하우스 하우스 키퍼와 Reception supporter 로 활동지원



#### YAMMA & YANGON YMCA







### 얌마팀의 활동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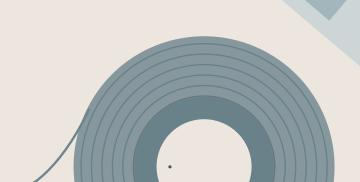
우리들의 미얀마 스케줄

월요일 MON	화요일 TUE	수요일 WED	목요일 THR	금요일 FRI	토요일 SAT	일요일 SUN
보육 in	보육 in	보육 in	보육 in	하우스키 핑	아띠클럽 in	보육준비
North Okkalap a [먀오끌 라바]	Yangon YMCA [양곤 YMCA]	Hlaing Ttaryar [흘랑따 야]	Shwepyit har Elem. School [쉐삐따 초등학교]	in Yangon YMCA	Yangon	각종행사 참여

02

# "보육 활동"

#암마의 주요 활동



# 보육활동

#### IN MYANMAR

# Nursery

- # 얌마 팀의 주 활동인 보육은 4개의 지역
- # 주로 버스로 이동, 가끔 기차로도 이동
- # 4-7세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
- # 매주 새 보육 프로그램 구상 및 진행





# 보육활동 사이트 소개 호텔 등







# 망유 종라바



- # 버스 왕복 3시간 거리
- # 정이 넘치는 선생님들 항상 간식을 챙겨주심
- 가장 활동적인 아이들, 정신 없지만 호응도 짱



- # YMCA 내 2층
- # 중산층 자녀
- # 선생님들의 말을 잘 따르지만 수동적인 반응

# 보육활동 사이트 소개 호텔 🎉 🙈



# 흘랑따야 Nursery



- # 버스 왕복 4시간 거리
- # 아이들의 학습 수준과 참여율이 높음
- # 아이들이 가장 많지만 선생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심

# 쉐삐따 초등학교



- # 버스 왕복 6시간 거리
- # 화재로 인해 세워진 마을, 유일한 초등학생 교육
- #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어 보육 진행이 어려움

#### 첫 번째 활동

### K-POP 댄스 &

#### 동요 부르기

#### 아이들과의 아이스 브레이킹

#처음 만나는 아이들과 어색함을 깨기 위한 K-POP 댄스

# 소녀시대 PARTY에 맞춰 "꼭지점댄스" 추기

# 생소한 노래에 어려워하는 아이들, 점프 구간을 누구보다 재미있게!

#### 우리나라 동요, 미얀마어로 불러보자

# "나비야" 와 "떴다 떴다 비행기"를 미얀마어로 번역

# 생각보다 어려울 줄 알았던 동요를 잘 따라 하는 아이들

# 동요에 익숙해진 뒤에는 율동도 겸해서 진행



미얀마어로 번역한 동요'나비야'를 잘 따라 부르 느 아이들

### 두 번째 활동

# 색깔 이름 & 과일 이름





색칠공부 하기 전 색깔의 이름은 알까 또 과일의 이름은 알까

#색칠 공부를 구상하기 전 아이들이 색깔의 이름은 알까

#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워보자 - 미얀마어, 영어, 한국어로

# 과일 색칠공부를 통해 색을 적용시켜 보자



색깔 이름을 가르쳐준 후 아이들이 그 색에 알맞은 과일을 골 라보고 색칠하는 시간

# 세 번째 활동 종이 접기





## 앉아서 듣는 강의형보다 참여형 보육, 종이 접기를 통한 이전 보육의 복습

#동요"비행기"의 비행기, 과일이름 교육의 바나나 를 접으며 복습하

#생각보다 세세한 설명이 필요한 종이 접기, 부족했던 언어실력

# 아이들에겐 너무나 어려웠던 종이 접기



#### 네 번째 활동

## 체육활동





볼링 하는 아이

#### 앉아서 하는 활동은 이제 그만! 머리 식히는 체육활동 준비 (feat. 공)

#대부분 공을 이용한 활동 – 볼링, 공 던지기, 폭탄게임 #꼬리잡기, 동대문을 열어라와 같은 한국 놀이 #사이트 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활동 #정돈이 안 되고 게임 룰 설명이 잘 안되어 애먹었던 활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가장 높은 흥미도



기차놀이 하며 뛰노는 아이들, 절대로 걷지 않고 뛰어다니다가 여러 명이 넘어진다.

#### 다섯 번째 활동

## 위생교육

- ✓ 손씻기교육
- ✓ 양치 교육





- 1) 아이들의 이를 보고 느낀 점 2)보육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한
- 비도 씻지 않는 손
  - #아이들의 대부분의 치아가 썩어있는 점
  - #올바른 양치 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
- #알지 못하는 것 몰라서 안 하는 것의 차이는 크다



올바른 손씻기 6단계를 직접 보여주기.

#### 여섯 번째 활동

## 안전교육

- ✓ 교통 안전 교육
- ✓ 화재 예방 교육
- ✓ 재난 대비 교육



신호지킵시다

- 1) 무분별한 무단횡단과 신호 미준수
- 2) 비 오는 날 호수 근처에서 죽은 아이 이야기
- 3) 최근 지진으로 인한 미얀마 사회 문제
- # 신호가 없는 곳이 대다수,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화재 시 대피요령 알고 있는 아이가 있을까
- # 주변에서 벌어진 참사
  - ♪ 최근 미얀마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수영금지 마크처럼 통용되는 신호를 가르쳐주며 상황극을 보여주다.

## 일곱 번째 활동

## 환경 교육

- ✓ 분리수거 방 법
- ✓ 쓰레기 배출줄이기
- 1) 미얀마 내 분리수거 미 실시
- 2) 쓰레기 투기로 인한 도로상태 불량
- 3) 물건이 썩기까지 걸리는 시간
- ##분리수거 개념을 설명
- #쓰레기 처리시간을 활용한 이해력 높이기
- #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줄이기







# 여덟 번째 활동 크리스마스 특집!

모자이크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모자이크!

크리스마스 기념 눈사람, 산타 할아버지

#13기부터 지속해온 가장 인기 있는 활동

# 크리스마스 기념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

#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활동, 아이들보다 우리들이 열심히 했던 활동



열심히 크게 크게 찢어 붙이는 아이들

#### 아홉 번째 활동

# 동물 교육





### 과일공부 형식 2탄, 동물 이름은 알까 동물이름 배우고 색칠

#동물 <조류,어류,포유류> 종류로 나눠 아이들에게 설명

#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워보자 - 미얀마어, 영어, 한국어로

# 동물 색칠공부를 통해 직접 적용시켜 보자



동물의 이름을 배운 후 아이들이 동물을 색칠하는 시간

#### 열 번째 활동

# 직업 교육





세상엔 다양한 직업이 존재한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향이 있음을 알린다.

#다양한 상황극을 통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직업교육

#직업에 대한 인식 제고



직접 직업들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재미를 느낌

### **NURSERY**

IN MYANMAR

지속가능성

우리는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 Part 1

위생교육 - 지속적교육 실시 매 식사시간 전 직접 손 씻기 실시

#### Part 2

위생 교육 4 안전 교육 <재난, 화재, 교통> - 책 제작 및 제공 지속적 교육 토대 마련



# #해쉬태그로 보는 소감 🕮

김치훈#버스와무거운도시락

무거운 도시락과 물을 들고 덥고 좁은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을 만나기도 전에 힘이 빠졌다.

#### 명화진#과제

아이들과 노는 건 나름 재밌었지만 프로그램 계획 회의에서 힘을 너무 빼는 바람에 지쳤다.

#### 심하진#체력

이른 아침 매일 보육을 하니 힘들었다. 아이들과 노는 것도 많은 체력을 필요로 했다.

#### 이한희#애기어그로

개구쟁이 애기들과 함께 배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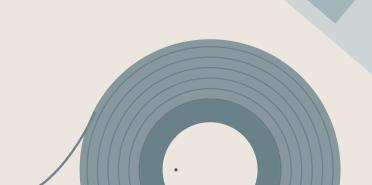
#### 이현아#나의 재발견

미얀마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내가 참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

03

# "하우스 케핑"

#얌마의 보조 활동



03

# House Keeping







매주 금요일, 남자들은 장기 투숙객들이 많은 올드 빌딩 청소 & 여자들은 두 명, 한 명으로 나뉘어 매주 돌아가며 뉴 빌딩 게스트하우스 청소와 리셉션 데스크

게스트하우스 청소는 더웠지만 보육보다 YMCA 일원으로서 활동한다는 느낌을 더 받았으며, 많은 스텝들이랑 마주칠 수 있어 친해지는 계기가 됐다.

## #해쉬태그로 보는 소감 🕮

김치훈#아쉬움

직원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한 활동이지만, 정작 하우스 키핑으로 친해진 것은 부족해서 아쉬움

#### 명화진 # 보육보다 하우스 키핑

스태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보육보다 훨씬 재밌었음. 가끔 힘들어서 땡땡이를 치기도 했지만 ^^...

#### 심하진 # 소속감

YMCA 건물에서 스탭들과 일하며 Y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꼈음

#### 이한희#일원되기

우리 일은 우리가 하기

#### 이현아#함께흘리는땀

하우스 키핑을 하며 스탭들의 업무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가까이서 유대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04

# ""望로"

#양곤을 떠나 마을 속으로!

# 껄로- 생활



본격적인 껄로 생활을 하기 이전 Dr.따냔, 산드라 간사님과 함께했던 인레 호수 보트 투어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연잎 줄기로 만든 옷, 수공예품 등을 구경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낚시꾼들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호수 어부들이 포즈를 취하면 돈을 주는 것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 껄로- 생활



민카 마을의 우리 가족들 을 소개합니 다!



놀러 가면 간식을 듬뿍 주 셨던 옆집 할머니 댁





04

# 껄로- 생활

# 민카 마을



마을에서는 나무를 쪼개 불을 지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삼시 세끼를 만들어 먹었다.

고기는 3일에 한 번 정도 장을 보고 오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건강한 식단을 먹을 수 있었다.

> 요리사인 한희, 치훈, 알렉스가 불 앞에서 고생 많이 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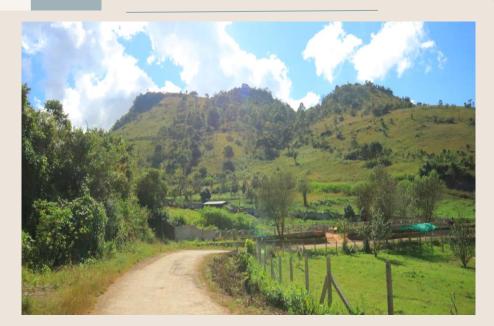


연기 때문에 눈물 나용



콜록 콜록

# **멀로-생활**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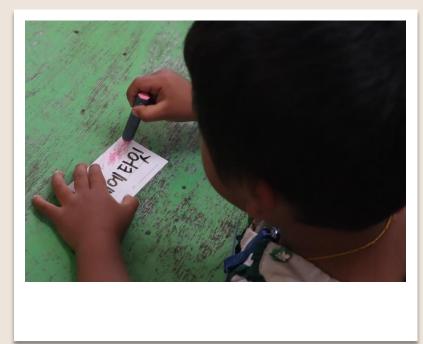
껄로는 노트북이 없어 시간이 남을 때 미얀마어 공부를 하거나, 산책을 다녔다. 이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휴식을 취하거나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 **펄로- 보육**

#### #이름표 달기



그 동안 생소하고 어려웠던 아이들의 이름을 잘 불러주지 못했던 아쉬움에 껄로에서는 꼭 이름표를 만들기로 결정!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만으로도 큰 유대가 쌓일 수 있었다.

#### #동요 & 색.과일



떴다 떴다 비행기 같이 불러요



아이들은 지역 언어인 빨롱어를 사용해 우리가 준비한 미얀마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들도 당황, 우리도 당황!

결국 선생님께 물어가며 빨롱어로 보육을 진행했고 처음 접하는 언어에 버벅거리며 마무리 했다.

# **펄로- 보육**

#### #위생 (손 씻기, 양치)



언제,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 설명한 다음 WHO에서 발표한 손 씻기 6단계를 같이 해 보았다.

그리고 하루에 3번, 3분 동안! 를 강조하며 양치하는 순서와 주의 사항을 알려주었다.



다른 친구가 앞에 나와서 실습 할 때도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에 감탄!





매일 점심시간 전, 복습을 위해 함께 비누로 손 씻는 시간을 가졌다.

04

# 껄로- 보육

코, 입을 가리고 연기를 피해



#### #안전 (교통, 화재)

미얀마의 도로에서는 때때로 위험한 순간이 있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 교통 이외에도, 꼭 알아야 할 재난 시 안전 사항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실습해 보았다.



04

# 껄로- 보육

#### #동물 모자이크

동물 모자이크를 진행할 때,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 얌마 팀도 강제 참여(?) 했는데

놀랄 만큼 꼼꼼하게 붙인 아이들 덕분에

잘 끝낼 수 있었다.



애들이 우리보다 잘하는데...?!



다양한 색깔과 얼굴 (자세히 보면 있음) 의 토끼 풍선과 함께

#### #풍선 아트

손목에 묶어줄 때 혹시 아프지 않을까 조심하며!

토끼 풍선을 달고 손목을 흔들며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아트용 풍선 대신 토끼 모양 풍선을 샀던 게 마냥 실수는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었다.

#### 04

### 껄로- 보육



커다란 솥에서 끓이는 닭죽! (점심 급식 이었다)

저질 체력인 우리들은 금방 방전되어 쉬자고 외 쳤고, 아이들은 쪼르르 따라 앉아 같이 조잘조잘 얘기했다.

앉아 있는 우리 머리에 꽃을 꽂아주고, 귤도 까주고… 자상했던 껄로 친구들아 보고 싶다…^^

#### #점심 시간

껄로 보육의 좋았던 점 중 하나는, 우리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아이들과도 놀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 보는 외국인들을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다가와주었다. 함께 손 잡고 달리기만 해도 꺄르륵~



점프만 해도 웃음이 터지던 아이들

### **펄로- 농장**



끝이 보이지 않았던 고추 따

#### #농장일

아보카도 묘목을 심은 후에는 잘 고정되도록 토닥토닥~

괭이질은 힘들었지만 다른 팀원들의 허접한 모습을 보며 비웃는 것 도



일 안 하고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김치훈이랑 심하진



끝이 보이지 않았던 묘목 심 기

결과물



### #해쉬태그로 보는 소감 🕮

김치훈 # 끊임 없는 눈물

장작패기부터 불을 직접 지피는 일까지 매일 3번 하면 눈물이 남아돌지 않았다.

명화진# 껄로 최고 껄로 짱

껄로... 정말 재밌었다... 껄로 짱!! 미얀마 하면 양곤보다도 껄로가 먼저 생각난다. 마을 분들이 너무너무 친절하셨다!

심하진 # 최고와 최악

껄로에서 최고와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

이한희#만남

마을 사람들과 감정 나누기

이현아#밖과안

멋진 자연 환경과 홈스테이 가족들,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와 상반되게 내 안은 정말 복잡했다.

05-1

# 아띠 클럽

# 라온아띠 양곤팀, 쭉 이어져온 만남

# 청년들과 친구되어 서로의 언어, 삶, 생각을 나눴던 시간

# 한국어 능력자들

# 우리를 애정하는 사랑둥이들

### ATTI Club 첫만남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 두근두근 아띠들과 첫 만남 과연 그 결과는...?

## Opening Party





####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첫 아띠클럽



일 년의 공백으로 아띠 클럽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양곤팀은 소개받은 기존 아띠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외국에 나가 있거나 여러 사정이 있어 아띠 클럽을 시작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Y 행사와 결혼식에서 직접 미얀마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아띠 클럽을 소개하면서 멤버를 모았고 스텝들도 불러 첫만남을 가졌어요.



#### 자기소개와 아이스 브레이킹

이름만 말하는 소개와 다르게, 여러 주제를 제시하고 직접 몇가지를 선택해 스스로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상대방을 다양하게 아는 시간을 가졌어요. 걱정이 무색하게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서 자연스럽게 아띠클럽의 첫만남은 거의 "한국"이었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게임을 준비했고 일심동체와 소금물 마시기 등을 여러 활동을 하며 다행히 금방 친해질수 있었잡니다.

### ATTI 공방

### 라온아띠 팔찌 만들기



!쾅쾅쾅



#### 모모와 아띠들에 무한 감사~

모모가 광주에서 준비해준 라온아띠 팔찌 재료 100개. (두둥) 저희가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손목에 맞게 자르기, 바느질, 망치질, 마무리 작업을 분업하여 초 집중한 우리들. 아마 아띠 클럽 멤버들이 아니었다면 하루 종일 했을 것 같아요.



#### 양곤팀 farewell party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양곤팀의 마지막 인사 자리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Y스태프들 앞에서 각자 활동을 마 무리하는 소감을 준비한 후 라온 아띠 팔찌를 스텝들에게 나누 어 주었는데 정말 좋아했어요. 서로를 잊지 못할 거예요.





스윗~

#### ATTI 문화 교류

###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아띠 친구들이기에 한국 음식을 같이 만들고 먹는 시간을 가졌어요 ◎





#### 분식집 컨셉

메뉴는 떡볶이, 주먹밥, 냉면, 김말이



#### 오랜만의 한국음식, 배가 된 행복

주어진 식단을 먹기에 따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양곤팀, 양곤 Y의 지원을 받아 아띠 클럽 친구들과 한국음식을 만들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직접' '함께' 만들어 먹으니 더 즐거웠답니다.



# ATTI 문화 교류

## Myanmar 민속촌

National Races Village

아띠 클럽 멤버의 추천으로 방문한 민속촌! 이 곳에서는 미얀마 내 여러 민족의 전통 가옥, 상징적인 장소를 구경하고 전통 의상도 체험해 볼 수 있었답니다. [Feat. 자전거,마채]





####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 미얀마

꺼옌, 꺼친, 버마, 친, 몬, 샨, 예카인 등 많은 민족들, 민족마다 생활 방식, 의식주, 역사가 다르고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기에 민속촌에서 각 민족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



#### 예카인 족의 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양곤팀이 방문했을 때 예카인 족의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민속촌. 엄청난 인파와 축제 분위기, 예카인 티셔츠를 입고 얼굴에 예카인 깃발을 붙인 사람들까지…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민속촌을 구경하기 힘든 날이기도 했어요.

## ATTI 문화 교류

### Peaple's park 나들이

함께 잔디밭 위에서 여러가지 게임을 하며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자 "공원"에서 만난 우리. 아띠 클럽 친구들이 알려준 그 곳은 공원이긴 공원인데,,,, "놀이 공원"이었어요.

#### 다음 날 온 몸이 아플 예정인 사람들



#### 거의 롯데월드



## With 아띠 클럽

1. 함께 고민하기

Myanmar

<u>길거리 쓰레기, 꿍야</u>

신호 미준수, 대중교통 부족

경찰 부패

이른 결혼, 낙태 문제 피임 교육 부재, 여성 차별

도로 낙후, 차도 협소

<u>근로 복지 부족</u> <u>낮은 월급과 높은 물가</u> 취업난, 청년실업률



<u>갑질 문화</u>

공부 만능주의, 대학 서열화 지나친 입시 경쟁

Korea

<u>서울 집중 발달</u> (<u>종주 도시화)</u>

대학 등록금

2. 준비하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우리의 고민을 나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띠 클럽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대화 나눴고 실생활에서 많이 경험했던 "교통 환경" 에 대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1 క్రాక్ డి. గ్రీక్ ఈ జి. కిర్మాణ్లు అస్త్రిత్తిత్ మా గాగా గార్జు మంగ్లా జిగ్గా గార్జ్ ప్రాగా తెలుగా ఆడ్మిత్తున్నా: అంది \* ఎక్కె మా. బాస్ట్ ప్రాగా తెలుగా ట్రిట్ స్ట్రిక్ ఈ జి. కిర్మాణ్లు అస్త్రిత్తిత్ သင္း ... ငါလဲ သန္လီလို ဇိုဇ္ဇာ မွီး တယ္။ ငါ အတွေး மைய் மழு: யி: கிவே மு பியி: கிழ்யு: மல் သေဘာကူးမြီး ကားတွေကို စည်းကမ်း ရှိ ရှိမောင် SE eme 19 12 3/2 10 3/2: 00 4/ 4/ 3/3 အေရောင်း မောမြစ်ခဲ့တယ်။ သူတို့အတွေး ကတော့ ... 1. ကားမေါ် ကနေ ကွဲပြီးတဲ့တွေးတွေးတာ ကုံးဝ ဖြင့်နို့ က်ဘူး " 2. ကေလာ်းတွေကျယ်ဂျီးကောင်း ဗျာဖာ 3. ဆမြိုင်တွေကိုလပ်းပေါ်မှာဗဟစ်ဘဲအမြှက်ပုံးစိ ကို စနစ်ဘကျစွဲနို့ဟင်စေချင်တယ<sup>်</sup> န 1. டு அவும் வக்கியா வுக்கும் நின r. မ်ိုးမျံရထားများ ပြုလုပ်ပေးဂုန်ကောင်း မပသိ തട്ട്രാവുത്യേര്.തട്തോനസ്ത அவி விரிக்கு

#미얀마 톡 #YES or NO #생각 나무

3. 실행



양곤 YMCA 내에서 하루, 길거리에서 아띠클럽 친구들과 하루 총 2번에 걸쳐 진행된 캠페인! 걱정과 달리 많은 분들의 참여해주셔서 우리의 생각 나무를 꽉 채울 수 있었답니다. 아띠클럽 친구들 뿐만 아니라, 상인 분들이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CAS TALK

As black for a sea of a sea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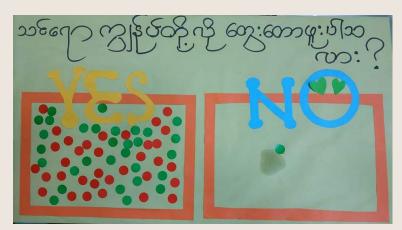
"길가 리"

"양곤 YM CA"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60명 이상 투표 참여

Good 내 일상의 불편과 위험을 공유 서로 성찰하고 다짐하기

Bad 일회성 캠페인, 지속성 고민



교통 환경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 거리 쓰레기 문제, 청소 필요 # 교통체증 # 기차, 버스 배차 부족 # 운전자, 보행자의 신호위반 # 신호등, 횡단보도, 육교 부족 # 불법주차 # 도로 정비 필요 # 스카이트레인 설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 교통 질서 준수 (신호/ 차 방향등) # 무단 횡단 하지 않기 # 쓰레기 길에 버리지 않기 # 성실히 세금 납부하기 # 교통 환경문제를 지금 캠페인처럼 주 변에 알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

### #해쉬태그로 보는 소감 🕮

김치훈#무게감

즐겁게 하려 했던 활동들이 언젠가부터 짐처럼 느껴졌던 활동들이 하나 씩 깨나가야 하는 과제처럼 느껴졌다.

명화진#아쉬움

아띠클럽 분들께는 정말 감사하지만 내가 낯을 가려서 조금 어려웠다. 끝나기 며칠 전에야 편해져서 아쉽... ㅠㅇㅠ

심하진 # 함께하기

함께 미얀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준비하여서 더 뜻깊은 시간

이한희#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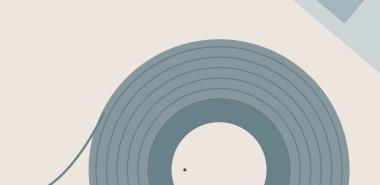
한국을 사랑해주는 친구들 만나기

이현아#사랑하는 내 친구들

라온아띠,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 친구들과 같이 활동하며 청년들이 바라보는 미얀마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나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는 친구들에게 감사했다

# 05-2 350ppm 캠III인

# 우리의 일상 속 350 # 주변으로 나아가는 350



# 양곤팀의 350 캠페인 일상 성찰하기



#### 잘했던 점

- 1. 5층-7층을 오갈 때는 주로 계단을 이용
- 2. 모두 5개월 간 손빨래
- 3. 외출 시에는 에어컨을 끄고, 평소에는 적정 온도(26~27)를 유지했다.
- 4. 방에서 텀블러 사용
- 5. 보육 자료 이면지 사용(신문지, 포스터 재활용)
- 6.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해 콘센트 전원, 불을 모두 끄고 외출

Etc. 샴푸, 바디워시 한번에 씻어내기, 온수 안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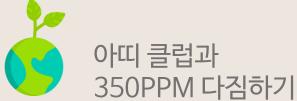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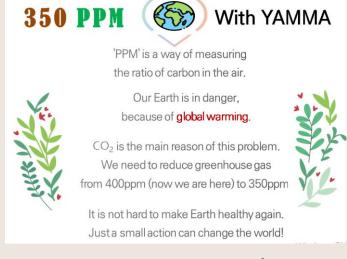
#### 부족했던 점

- 1. 7층에 위치한 숙소, 잦은 엘리베이터 사용
- 2. 보육 갈 때 페트병(물병) 사용
- 3. 분리수거를 못함 (미얀마 -음식물, 일반, 플라스틱 구분없이 처리함)
- 4. 손 빨래, 설거지를 할 때 세제 사용이 많았음
- 5. 식단 중 외부 음식은 일회 용기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이 잦았음.

# 양곤팀의 350 캠페인 공유하기







#### 350PPM 포스터







양곤 YMCA 350ppm 알리기 계단 사용 장려하기

# 양곤팀의 350 캠페인 공유하기



Your one step, the first step for Earth

RaomAtti 18th



350ppm 포스터와, 계단에 붙일 문구를 직접 제작했어요. 서툰 미얀마어를 동원해 문구점을 바쁘게 오가며 프린트와 코팅도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따냔 총장님의 사인을 받고 나서 Y 로비 계단에 문구를 직접 부착!! 성공 그런데!! 계단 문구가 오래 지속되길 바라면서 코팅도 했지 만 워낙 오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 떨어지고 말았어요 ㅠㅠ 다 행히 산드라 간사님의 아이디어로 계단 문구들을 쭉 이어 붙 여 Y 벽에 행잉하기로 했답니다!

Earth becomes healthier thanks to your small action

Racom Atti 18th



### #해쉬태그로 보는 소감 🕮

김치훈 # 마음 속 한 구석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언젠가 하겠지 미뤄왔던 캠페인이었지만 많은 참여해준 스탭들에게 고마움

명화진#해야되는데...

초반에는 잘 지켰는데 시간이 갈수록 힘들다는 핑계로 못지켰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음.

심하진 # 소홀함

오히려 광주보다 현지에서 소홀해서 아쉽다

이한희#양심

조그마한 불편 참기

이현아#의무감

어느 순간 스스로 당위를 느끼고 실천하는 게 아닌 의무로 다가왔고 진실성이 부족했던 캠페인이었던 것 같다.

06

# "Hah"

#5개월 간 뭐 하고 지냈니?

06

### 생활: 결혼식

미얀마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결혼식!

양마 팀은 5개월 동안 인도식, 미얀마 기독교식 결혼식 등등… 다양한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 미얀마의 기독교식 결혼식

- ✔ 우리에게 친숙한 결혼식과 비슷
- ✓ 주로 성당, 교회에서 함
- ✓ 신부의 들러리가 많음
- ✓ 식이 끝나면 항상 치킨 요리를 먹음



#### 인도식 결혼식

- ✔ 사원에서 이루어짐
- ✓ 미얀마식과 비슷
- ✔ 장소, 복장이 다름
- ✓ 이마에 붉은 점을 찍음



얌마가 참석했던 첫 번째 결



### 생활: 불교 문화 체험

전 인구의 85%가 불교를 믿는, 불교의 나라 미얀마 종교와 생활이 밀접하게 닿아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 습니다

# 1. 파고다 방문



#### 쉐다곤 파고다

양곤 그 어디에서도, 높은 곳만 올라가면 보이는 쉐다곤 파고다! 사람들이 행운을 바라며 붙이는 금박지로 번쩍번쩍해요

탑 꼭대기에는 73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포함해 총 5,448개의 다이아몬드, 2,317개의 루비와 사파이어, 대형 에메랄드가 박혀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미얀마는 요일 별로 수호 동물이 있는데, 쉐다곤 파고다에 가면 수호 동물에게 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 어요.





### os 생활: 불교 문화 체험

# 2. य로



게스트 하우스에서 지내던 양곤과는 달리, 껄로에서는 마을 주민분의 집에서 함께 지냈기 때문에 종교가 일반 생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찍어도 된다고 허락 받고 찍은 단체 사진

집집마다 있는 작은 부처상과 곳곳에 있는 많은 파고다들, 신이 있는 방향으로 누워 자면 안 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종교와 생활이 밀접히 닿아 있었어요.

06

가도 가도 계속 나오는 파고다들

### 생활: 불교 문화 체험

3. 바간





# #

- ✔ 주변을 포함해서 5,000여 곳에 이르는 파고다 있음
- ✔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불교건축의 보고
- ✓ 숙소도 절이었음

바간

✓ 다양한 형식의 파고다 존재

### 생활: 불교 문화 체험

# 4. 짜익티오



출처:

짜익티오는 떨어질 듯 말 듯한 황금 바위로 유명합 니다.

이 바위가 어떻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절벽 가장 자리에 있는지는 아직 미스터리라고 해요.

YMCA를 방문한 손님들 덕분에 기회가 생겨 얌마 팀 몇 명도 다녀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얌마 팀이 도착했을 때는 바위가 공사 중이어서 거의 가려져 있었고, 일부만 터널로 연결되어 공개했는데

여자는 바위를 만져볼 수가 없어 (여자가 바위를 만지면 바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남자 팀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케이블카도 타고 재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 06

### 생활: 비자 트립



짜뚜짝 시장 구경!



방콕의 밤



• 으로 비자 트립을 다녀 왔어요

빡빡한 일정에 지쳤던 얌마 팀이 짧고 굵은 휴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 다

방콕을 돌아보기도 하고, 파타야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날렸던 시간이었어요.

우리 라온아띠 하러 왔는데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거냐면서 입으로는 걱정했지만 몸은 재밌게 놀고 왔습니다.

미얀마와 방콕의 다른 점이 눈에 띄기도 했었어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탁 트이는 바다



낙하산 타요~

### os 생활: MEI 크리스마스

### 양곤 Y의 크리스마스





#### 캐롤 데이

양곤 Y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찾아오면 모든 스태프들이 스태프들의 집을 돌며 캐롤을 불러 줍니다. 다 함께 버스를 타고 가는 과정은 즐거웠어요! 새벽까지 부른다길래 에이, 설마… 했는데 정말 새벽까지 불러서 깜짝 놀랐던 활동입니다.





#### 씨티 크리스마스 부스 운영 돕기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 부스와 무대를 설치하고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음식을 무료로 대접하며, 같이 캐롤도 부르고 무대를 보며 즐거워 하는 시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바쁘게 일하는 스태프들을 따라 같이 일하다 보면 눈 깜짝할 새 시간이 흘렀던 활동이었습니다.

### 생활: 라온아띠와의 만남

# 미얀마팀 13기와의 만남!

라온아띠 13기 미얀마팀단원들을 만났어요!

양마 팀과 같은 시기에 양곤에서 NGO 활동을 하고 있던 한솔 단원을 만나 맛있는 밥과 음료를 얻어 먹었던… 시간이었어요.

한솔 단원 말고도,

교환 학생으로 다시 미얀마를 찾은 태규 단원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태규 단원과는 함께 보육 장소인 쉐삐따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사진이 없어요··· )

양마 팀이 가지고 있던 고민들도 나누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솔 단원과의 만남







(만나서 얻어 먹었던 것들... 고맙습니다





